

## 독도뉴스 46호

2023.5.9

竹島=독도문제연구넷

<http://www.kr-jp.net>

### 기사 일람

1. 【논문】 박병섭, 「일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사건과 울릉도 탈취 기도」
2. 【연구회 보고】 玉田大, 「국제재판에 있어서의 영토주권 분쟁의 존재 인정」
3. 【공부회 보고】 『竹島자료공부회 보고서 '메이지 10년 태정관 지령'의 검증』
4. 【논설】 塚本孝,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재고」
5. 【DVD】 「최신 연구에 의한 竹島=독도 문제」
6. 【집회】 제5회 '竹島の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 in 도쿄

### 기사 내용

1. 【논문】 박병섭, 「일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사건과 울릉도 탈취 기도」,  
『독도연구』 33호, pp.7-39

1880년 전후 외무성에서 다케시마(竹島)와 마쓰시마(松島)의 이름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본인들의 제3차 울릉도(마쓰시마) 침입의 계기를 만든 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역 사무관을 지나는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였다. 본고는 첫째, 그가 마쓰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믿게 된 기본 자료는 그가 번역한 '콜튼씨 일본지도'임을 밝힌다. 둘째, 세와키의 권장에 따라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중장의 주변 사람들이 마쓰시마에서 벌목 사업을 시작했음을 밝힌다. 셋째,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을 항의하는 조선 정부에 대해 왜 일본 정부는 허위 회답을 했는지 일본의 대처를 분석한다. 넷째, 일본 정부는 조선의 재차 항의에 거의 대처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임오군란에 있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이용하여 마쓰시마를 탈취하려 기도한 것을 밝혔다 한다. 다섯째,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인들이 조선 관리에 항변한 문언의 한역을 둘러싼 연구자 간 논쟁을 살펴보는 등, 본고는 일본의 제3차 울릉도 침입사건에서 남은 과제를 해명한다.

(일본어) <http://www.kr-jp.net/ronbun/park/park-2212-3rd.pdf>

(한국어) <http://www.kr-jp.net/ronbun/park/park-2212k-3rd.pdf>

2. 【연구회 보고】 玉田大, 「국제재판에 있어서의 영토주권 분쟁의 존재 인정」

『국제법에서 본 영토와 일본』 東京大学出版会, 2022, pp.231-254

한국은 竹島=독도의 영토분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분쟁을 해결할 절차나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에 분쟁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유엔해양법조약 부속서 VII에 규정된 중재재판소에서 '연안국 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재재판소는 크림반도처럼 주권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므로 심사 과정에서 분쟁의 존재 유무가 드러난다. 일본이 무슨 사건에 맞춰 연안국 소송을 제기하면 객관적으로 竹島=독도에 관한 주권분쟁의 존재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송이 행해졌을 경우 일본의 신고 내용에 따라 중재재판소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예상해 본다. 그런데 이러한 중재재판소의 이용은 남용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http://www.kr-jp.net/member/ronbun\\_cl/msc\\_ron\\_cl/tama-2022-UNCLOS.pdf](http://www.kr-jp.net/member/ronbun_cl/msc_ron_cl/tama-2022-UNCLOS.pdf)

【코멘트】 이 연구는 전 외무성의 싱크 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가 가진 「영토·주권·역사 조사연구」 프로젝트에서 「영토·주권 분과회」의 연구 성과를 간행한 위의 서적에서 공표되었다. 이 제언을 받은 외무성이 '연안국 소송'을 일으킬지 여부는 양국 간 '분쟁'의 분위기와 규모, 정치정세 등에 달려 있을 것이다.

### 3. 【공부회 보고】『竹島자료공부회 보고서 '메이지 10년 태정관 지령'의 검증』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2022

JIIA의 '竹島자료공부회'에서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공부한 성과를 3월에 발표.

박한민이 발굴한 『花房義質關係文書』를 보면 내무성은 나가사키현령에 대한 회답에서(1877)에서 '마쓰시마'를 울릉도로 다루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 반년 전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일본과 관계없다고 하는 '태정관 지령'에서 내무성이 생각했던 마쓰시마도 울릉도이며, 오늘날의 竹島=독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序章 報告書の問題意識と各章の要旨	竹島資料勉強会
第1章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の検討過程	竹島資料勉強会
第2章 “太政官指令”と元禄の日朝交渉	塚本 孝
第3章 山陰地方の歴史から考える「太政官指令」問題	杉原 隆
第4章 島根県の地籍編纂と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	内田 てるこ
第5章 当事者の認識(太政官及び内務省)から見た「竹島外一島」	竹島資料勉強会
第6章 明治10年「太政官指令」当時の政治情勢	松澤 幹治
第7章 明治16年太政官内達の検討	山崎 佳子
第8章 韓国の竹島領有主張と「太政官指令」	藤井 賢二
第9章 韓国社会科教育における竹島問題と「太政官指令」	藤井 賢二
補章 李奎遠と『鬱陵島檢察日記』について	永島 広紀
資料編 (『公文録』)	

[https://www.jiia.or.jp/pdf/research/R03\\_Takeshima/JIIA\\_Takeshima\\_research\\_report\\_2022.pdf](https://www.jiia.or.jp/pdf/research/R03_Takeshima/JIIA_Takeshima_research_report_2022.pdf)

【코멘트】 이 공부회는 자료의 자의적인 취사선택이나 해석이 현저하다. 내무성은 문의서를 태정관에 제출함에 있어서 『이소타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를 조사했으므로 당연히 거기에 기록된 마쓰시마가 시마네현 문의서의 마쓰시마(독도)와 같다

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 태정관이 생각하는 마쓰시마와 시마네현이 생각하는 마쓰시마가 일치함은 『태정유전(太政類典)』 제2편 제96권을 보면 분명하다. 이 기록은 항목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를 판도 외로 정한다」에서 시마네현 문의서에 있는 '원유의 대략(原由の大略)'을 필사하고, 마쓰시마에 대해 「다음에 일도가 있다. 마쓰시마라고 부른다. 주회 30정…」이라고 기록했다. 이처럼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본의 판도 외로 정한 태정관 지령에 있어서 시마네현, 내무성, 태정관이 생각하는 마쓰시마는 동일하며 오늘날의 독도이다. 게다가 내무성은 나가사키현이 말하는 마쓰시마는 섬 이름의 혼란을 받은 명칭이며, 이는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다케시마(울릉도)를 가리킨다고 정확히 이해했던 것이다. 공부회는 이러한 자료의 분석이 부족하다.

#### 4. 【논설】塚本孝,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재고」,

『島嶼研究ジャーナル』 12권 1호, 2022, pp.6-17

① 1870년 외무성의 佐田白茅 등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을 내탐했을 때 민부성(民部省)의 의뢰도 받아 겐로쿠(元録)기 '다케시마(울릉도) 일건'을 조사하여 표제의 내탐서에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부속에 된 시말'을 적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견해를 적은 보고서이며 마쓰시마(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② 앞의 항목 3의 【공부회 보고】로부터 내무성은 마쓰시마=다케시마=울릉도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내무성은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마쓰시마는 울릉도라고 이해했다.

[http://www.kr-jp.net/member/ronbun\\_cl/tsukamoto/tsuka-2209-naitan.pdf](http://www.kr-jp.net/member/ronbun_cl/tsukamoto/tsuka-2209-naitan.pdf)

【코멘트】 ① 쓰카모토는 사다 등의 보고서를 단순한 개인의 견해라고 폄하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민부성·외무성·태정관 등 일본 정부의 관계 기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그 이웃 섬인 마쓰시마(독도)도 조선 부속이라는 인식이 생겨 국정에 영향을 주었다. 그때까지 다케시마(울릉도)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했던 민부성은 이 보고서를 받은 다음 해 다케시마를 현지 조사한 후쿠오카(福岡)번 사족 藤茂親로부터 제출된 「다케시마 항행 어렵 원서」에 대해 일·조 양국 간에서 소속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섬이기 때문에 시험 도항이라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각하였다. '단지' 보고서가 국정의 지침이 되었던 것이다. 민부성은 훗날 대장성에, 이어서 내무성에 흡수되었다.

② 일찍이 池内敏로부터, “쓰카모토는 스스로의 논증 과정을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사료의 자의적인 잘라내기나 붙임에 의해 정반대의 결론을 끌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논증'은 학문적인 영위가 아니다... 불필요·부당한 혼란을 논의의 현장에 끌어들이고 있을 뿐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사②는 흑시이에 대한 반론일까 생각되었는데 쓰카모토는 여전히 이케우치의 비판에 침묵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 5. 【DVD】 「최신 연구에 의한 竹島=독도 문제」

趙吉夫·漆崎英之·竹島=독도문제연구넷

「竹島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이 결성된 지 10년을 계기로 竹島=독도 문제에 대해 확실한 최신 정보로 공고한 지식을 지니고 다양한 주장에 대해 그 진위를 확고히 가려내기 위해 제작된 DVD.

제1장 1절, 竹島=독도 문제란

제1장 2절, 竹島=독도 영유권의 개략

제2장, 에도(江戸)시대의 竹島=독도 -연구자 간 격렬한 논쟁

제3장, 근대의 竹島=독도 -자료 해석을 둘러싼 격론

제4장, 현대의 竹島=독도 -일본의 독립과 국제 정치

이 DVD는 다음 항목 6에 기재된 6월 3일 집회에서 공개된다.

## 6. 【집회】 제5회 '竹島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 in 도쿄

竹島=독도 문제를 바로 이해하자

제1부 강연: 시마네현의 학습 리플릿 「竹島」의 특징

강사: 박병섭 박사('竹島=독도 문제 연구 넷' 대표)

제2부 DVD 시청: '최신 연구에 의한 竹島=독도 문제'

해설: 漆崎英之 씨(일본 그리스도개혁파 金沢 교회 목사)

일시: 2023년 6월 3일(토) 14:00~16:30(개장 13:30)

장소: 대여 회의실 秋葉原加藤 秋葉原 No. 67

<https://www.google.com/maps/search/%E8%B2%B8%E3%81%97%E4%BC%9A%E8%AD%B0%E5%AE%A4%E7%A7%8B%E8%91%89%E5%8E%9F%E5%8A%A0%E8%97%A4/@35.6983548,139.7735559,17z/data=!3m1!4b1>

주최: '竹島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

안내서: <http://www.kr-jp.net/sympo/kyo-230603-dvd.pdf>

○ 독도뉴스의 과거 뉴스(일본어)는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半月城通信) [http://www.han.org/a/half-moon/mokuji.html#net\\_news](http://www.han.org/a/half-moon/mokuji.html#net_news)